

2021년 4월 25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7편 15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549장(통431) 내 주여 뜻대로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다니엘 4장 19~27절(구약p.1239)

19.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20.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21.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22.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23.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쇠와 낫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때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24.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25.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6.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7.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 말씀선포 /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면

잠언 20장 30절에서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 목적과 징계의 유익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

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흔히 사랑의 반대말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뜻은 때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른길로 가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알아 오히려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왕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몽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징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도는 징계에 바르게 대처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1.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왕에게 하늘까지 닿고 땅끝까지 미칠 권세를 주셨으나 이제는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실 것임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왕이 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징계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왕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왕을 그렇게 징계하시는 목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왕이 권세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행하기에 교훈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느부갓네살왕에게 꿈을 통해 미리 알리신 것은 그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왕을 회복시키실 계획이 없었다면 꿈으로 그 사실을 알려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돌이키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결국 그 죄 값으로 벌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고 바른길로 행하도록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렇기에 징계를 당할 때 회개하면 오히려 그 징계가 복이 됩니다. 징계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동기가 되는 징계는 결국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자녀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간들 관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징계로 더욱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계가 임할 때 관련

2. 징계를 당하는 자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

를 살리시고 돌이켜 높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에게 하나님은 왕의 죄 때문에 징계를 내리실 것이므로 징계가 임하기 전부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충언합니다. 교만함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에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징벌 중에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징계를 결정하셨다면 취소할 수는 없지만 징계를 당하는 자세에 따라 기간이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속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는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 징계를 당하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픔이 가득하지만 후에 이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키가 크고 더욱 성숙하기 위한 성장통과 같습니다. 징계를 당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 더욱 은혜를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259장(통193)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 폐 회 / 주기도문